
2024년도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2조)



전주시의회
사무국

목 차

I. 추진 개요	1
II. 심사근거 및 절차	3
III. 배경 및 목적	3
- 출장 목적 및 방문시설	5
IV. 기대 효과	16
V. 방문국가 정보	19
VI. 출장 일정	23
VII. 출장단 구성	24

2024년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2조)

I 추진 개요

○ 기 간 : 2024. 5. 27.(월) ~ 6. 5.(수) 8박 10일

○ 국 가 :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출국	→	프랑스	→	벨기에	→	네덜란드	→	귀국
5. 27.(월)		5. 28(화)~31.(금)		5. 31(금)~6. 01(토)		6. 01.(토)~04.(화)		6. 05.(수)

○ 주 제

- 지속가능한 도시농업과 스마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정책, 스마트팜, 협력체계 벤치마킹
- 재생에너지와 교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정책 탐구
- 복합문화공간과 랜드마크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 주요일정

일 자	지 역	출 장 내 용
5.27(월)		○ 항공편 이동
5.28(화) ~ 5.31(금)	프랑스	○ 탄소중립 녹색도시 우수 운영 및 정책 연구 ▶ 쇠퇴지역에 도시기능을 접목한 재생사례 견학 ○ 재생에너지를 통한 도시의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 사례 ▶ 탄소중립 실증사업 사례 조사
5.31(금) ~ 6.1(토)	벨기에 네덜란드	○ 치유농업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농업정책 및 치유농업 조성사례 등 관련 시설견학 ○ 복합문화공간 통한 도시 정체성과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 ▶ 현대건축 조성 사례 등 관련 시설 견학
6.1(토) ~ 6.4(화)	네덜란드	○ 스마트팜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운영 사례 ○ 연구-정부-민간 네트워크와 협의체 등 농업 협업 사례 분석 ▶ 농업기술과 운영조직 및 운영방법 사례 조사 ▶ 수집자료 분석 및 토론 ○ 친환경 도시개발 및 교통 정책 사례
6.5(수)		○ 항공편 이동

- 인 원 : 의원 10명
- 소요경비 : 1인 5,800천원(자부담 1,800천원)

- ▶ 국외여비 지급항목 : 항공운임 - 실비
- ▶ 지급기준(일비·식비·숙박비)

[단위: 1인/USD 1347.00원 / '24. 3. 28. 하나은행 기준]

구 분	총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원	일수	\$	계	일수	\$	계	일수	\$	계
계	2,090	2,815,230	10	60	300	8	140	538	8	313	1,252
가	1,067	1,437,250	4	30	120	3	81	243	4	176	704
나	1,023	1,377,980	6	30	180	5	59	295	4	137	548

※ 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 국가별 등급 : 프랑스(파리) - 가등급, 벨기에, 네덜란드 - 나등급

○ 출장비용(예산범위 내 지급)

- ▶ 의원 : 4,000,000원×10명 = 40,0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회비(의원국외여비)

○ 출장방법

- ▶ 용역 수행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업체 선정
 - 역할 : 항공 및 호텔 예약, 현지 교통, 보험 가입, 안내 등 전반
- ▶ 방문기관 선정 : 출장 참여의원 선정(간담회) ⇨ 현지 코디 안내
 - 의회사무국 : 방문 장소 및 주요 벤치마킹 사항 등 공문 시행
 - 용역업체 : 기관방문 사전협의, 방문대상자 및 보조자료 준비, 현지 전문 코디 활용 진행 등

II 심사근거 및 절차

□ 심사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회규칙 제36호, 2019. 3. 28.)

□ 추진계획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 4. 01.(월)
- 진행업체 모집공고 : 4. 02.(화) ~ 4. 12.(금) / 10일 간
- 서류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4. 15.(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4. 17.(수)
- 선정업체 발표 : 4. 18.(목)
- 계약 체결 및 협상 : 4. 19.(금) ~
- 사전설명회 개최(2회) : 4. 19.(금) ~
-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시 : 5. 27.(월)

III 배경 및 목적

- 전주시는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차량 운행 제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자전거·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전주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탄소중립도시 공모사업’ 예비후보지로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전주시가 탄소중립도시로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 하지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권과 공동체로 확산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실현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보다 근본적·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도시개발 및 교통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 더불어 전주시 농업은 절대적인 규모에서 동부권 지역보다 크지만, 도농복합 특성으로 인해 부차적 영역으로 취급되어온 측면이 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있어 청년 농업인 육성과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함에도 다양한 이유에 따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한정적인 농가 판로, 농업 기술 등 전주시만의 농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현실임. 이에 도시와 공존하는 생산·가공·체험·판매 등이 융복합된 전주시 농업발전모델의 수립이 필요함.
- 전주시는 올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경쟁력 확보와 전문 농업기술 확산, 스마트 농업기반을 확대하는 등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임. 더불어 2023년 7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전주시도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스마트 농업기술 지원 및 스마트 농업기반 확대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또 전주시는 16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총 38개의 거점시설을 활성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더불어 비어진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2018년 카세트테이프를 생산하던 팔복예술공장을 예술가를 위한 공간으로 개선하였고, 최근 남부시장 원예공판장 자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음.

- 이에 우리시 현안 과제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화, 농업기술 확대, 스마트 청년 농업인 육성, 경쟁력 있는 지역농산물 생산, 대규모 도시 재생 및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연구를 위해 유럽의 선진 사례를 견학 하고 조사하여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출장 목적 및 방문시설

1. 지속가능한 도시농업과 스마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정책, 스마트팜, 협력체계 벤치마킹

▶ 중점출장내용 : 농업 분야

- ▶ 스마트팜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운영 사례
 - ▶ 연구-정부-민간 네트워크와 협의체 등 농업 협업 시스템 사례
 -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정책 및 전략 연구
- 전주 10대 역점 전략 중 하나인 ‘기술과 혁신으로 미래도시농업 기반 조성’ 프로젝트는 △이상 기후대응 신기술 보급 확대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스마트 청년 농업인 육성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 및 전주대표 농산물 상품화 △농업인 소득보전 및 생산·유통활성화로 농업경쟁력 강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 같은 사업들은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이상기후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 확대 등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전주시는 그동안 품목의 다양화 부족, 농가 운영 미흡, 농업 기술의 한계 등으로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만족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네덜란드는 농업은 세계 3위 농산품 수출국가이며 정밀농업, 자율재배, 기계화, 순환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농업강국 나라 중 하나임. 뿐만아니라 스마트팜, 재배, 가공, 판매, 치유, 교육 등 6차산업화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 치유농업, 첨단기술, 탄소중립 농업정책을 실현하였음.
- 따라서 ICT기술과 AI기술을 접목하여 척박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한 네덜란드의 농업기술과 정책 형성에 대한 이해, 현지의 농업 현황 및 성공적인 농업정책 및 마케팅 전략 사례를 살펴보고 직접 관찰하고 전주시 농가의 기술지도 개선 방향성 수립을 얻고자 함
- 더불어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인 치유농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도 이에 발맞춰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고,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음.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농업영역을 넘어 교육·복지·고용·의료 등 타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음.
- 이에 지역 특산물 활용 및 홍보를 통해 농산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친환경·유기농·치유농업 등 농업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연구센터 (농업 협력체계)

- 1876년 농업 대학으로 설립되어, 1918년에 공립대학으로 전환되었으며, 1997년에 Wageningen 대학과 DLO(네덜란드 농업연구청)이 통합하여 WUR(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를 만들었음.
- WUR은 연구(대학), 정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goldentriangle)이라 부르는 긴밀한 연계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교육·가치창출을 핵심 업무로 삼고 있음.
- 5개의 전문 과학그룹으로 나뉘, 와게닝겐대학(WU)과 전문연구소(DLO)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농업기술 및 식품과학-식품바이오연구소 ▲동물과학-축산·수의학 연구소 ▲환경과학-환경연구소 ▲식물과학-국제·응용식물연구소 ▲사회과학-농업경제연구소·개발혁신센터)
- 현재 5천여명의 직원과 220여명의 교수가 재직중이며, 학생들은 112개국에서 온 1만3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학부와 석사과정이 1만1천여명, 박사과정이 2천여명임.
- 교육·훈련·기초기반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 경쟁력을 갖춘 응용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소, 공공 R&D와 시설 공유 및 협업활동을 하는 기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창업을 이끄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네덜란드, 아그리포트 A7 (친환경 스마트팜, 유리온실, 생산·유통)

- 암스테르담에서 30분 거리이며 스키폴 공항과도 가까운 A7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채소 생산, 가공, 유통의 중심지. 간척지에 대규모로 조성된 융복합 농공단지이자 스마트팜 단지로 총 2만ha 규모의 유리온실에서 대규모로 농작물 제배하고 있음.
- 2006년부터 로테르담에-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던 10개의 농가가 이주해 스마트 팜 클러스터를 형성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도 성공적인 농업단지중 하나로 평가됨
- 고도로 자동화된 온실의 냉난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열 및 풍력발전 투입, 동시에 온실마다 식물생육에 필요한 순수한 이산화탄소 추출을 위한 LNG 발전기 가동을 가동하며, CHP(Combined Heat and Power) 시스템 장치를 통해 LNG를 연소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전기와 이산화탄소만 온실에서 사용하여 남은 전기는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 에너지절감을 위해 전기나 경유보다 천연가스와 지열을 혼합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지열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빗물 수집 의무화나 코코피트 재사용을 실천하고 있음.



▣ 벨기에, 치유농장 (치유농업)

- 벨기에는 사회복지와 결합하여 공공성격에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되었음. 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급증, 치유농장과 농장이용자 사이의 관계유지, 중립유지를 하고 있음.
- 농장의 농업활동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로 선정, 치유농장을 정신적 문제해소,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한 방법으로 치유농장 이용을 처방하고 있음.
- 농가현장에서 융복합형 치유농장으로 변화하고 있음, 일반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한 여가활동을 돌봄농장에 도입함으로써 지원비용의 절감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함.



2. 재생에너지와 교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정책 탐구

▶ 중점출장내용 : 탄소중립 분야

- ▶ 재생에너지를 통한 도시의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 사례
- ▶ 탄소중립 녹색도시 우수 운영 및 정책 연구
- ▶ 친환경 도시개발 및 교통 정책 사례

○ 최근 전 지구적으로 폭우, 폭염, 한파, 폭설 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

가 확산되면서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화두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우리 정부는 2023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설정했음.

- 더불어 정부에서는 지역주도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간다고 밝히면서 기초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이행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 바, 전주시에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파리는 기후변화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18년 2050 탄소중립계획을 발표하였고, 기후변화에 강한 주택과 자원순환 시설이 광장 근처에 있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다니지 않으며,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녹지를 누릴 수 있는 녹색도시로 대변화 하였음.
- 현재 전주시는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 및 세부사업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 현대적인 스마트 기술도입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도시의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한 실제 사례를 수집하여, 도시와 인프라의 연계성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자전거, 보행자전용구역,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 등 성공적인 친환경 교통·도시개발 정책 사례를 통해 전주시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함.

▣ 파리, 이씨레몰리노 -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 파리 남쪽 외곽에 이웃한 이씨레몰리노(Issy-les- Moulineaux)시는 상시 주거인구가 5000명인 소도시이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입지해 있는 비즈니스 중심지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지원하고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 합리화, 재생에너지 생산 통합,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며, 가정, 사무실, 상업지구, 공공기관 등 각각의 용도에 따른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기 위한 전력망의 완성을 목적별 최적 에너지 소비 관리를 위한 전력망 완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각 센서에서 수집된 월 5,000만 개가 넘는 데이터들은 10개 회사 모두가 공유해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파리의 확장형 도시계획인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일부분이기도 하여 파리시와 92지역(Hauts-de-Seine) 등 지리적으로 연결된 4개의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고 있음.

▣ 파리, 클리쉬 바티놀 지구 - (탄소중립, 생활에너지)

- 클리쉬 바티놀 지구는 파리 북측 17구에 위치하고 도시개발사업 또는 철도 유휴지 재생사업 지역으로 환경계획 지구의 모범사례로서 CO2 발생 억제를 위해 재생가능한 생태에너지(태양열, 지열 등)를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임.
- 2010년 설립된 파리 바티놀 정비사업회사에서 추진, 기후계획과 생

태 다양성 계획을 적용받아 에너지, 생태환경과 함께 수자원, 폐기물, 재료 측면에서 다양한 계획요소가 적용되었음.

- 약 10ha 클리쉬 바티놀 마틴루터킹 공원이 있고, 전체 면적의 약 23%가 녹지로 구성되어 친환경적 사업지구로 조성하여 공원을 단지 중앙에 계획하고 주변 지역의 도시형태 및 길과 연계되는 녹지를 계획하여 바람길을 만들어 기존의 파리지역 온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더불어 파리시는 집에서부터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실, 병원, 도서관, 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접도시를 만드는 정책을 선도하여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15분 도시를 제시하였음.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중앙기차역 - (자전거정책)

- 위트레흐트는 공해없는 도시생활 영위를 위해 시는 가장 먼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교통체계 수립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기차와 공유차 활성화로 네덜란드에서 위트레흐트는 차량 공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가 되었음.
- 자전거 고속도로 및 세계 최대규모의 실내 자전거 주차장(12만 5천대) 건립,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시스템 향상, 노후차량 금지 구역 설정, 오염원 배출하지 않는 교통수단 확보 등을 통해 가장 공해없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 위트레흐트의 자전거 주차장은 중앙기차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임. 상징적인 캐노피 아래에는 12,500대 이상의 자전거를 담을

수 있는 3층 주차장이 있으며, 디지털 시스템기반으로 빈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3. 복합문화공간과 랜드마크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 중점출장내용 : 도시재생 분야

- ▶ 파리 시내 전역에서 추진된 도시재생 및 개발 사례 연구
 - ▶ 복합문화공간 통한 도시 정체성과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
- 전주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현재 총 16건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전주시는 노후 건축물과 관련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노후주택에 대한 개선사업 등과 같이 기존 주택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거점시설들은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건물이 많은 상황이며, 앞으로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 예술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104 상카르트같은 경우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여 누구나 예술가의 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팔복동 새뜰사업 추진 시 예술가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임.

- 과거 혐오시설, 방치된 건물 등 건축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문화공간과 콘텐츠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물리적 콘텐츠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한 해외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전주시에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자 함.

▣ 프랑스, 104 상카르트, 레 알 지구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

- 104 상카르트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1874년 건립 후 1997년까지 사용되다 방치된 장례식장을 시에서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함.
- 열린공간을 희망한 주민뜻을 수용하여 출입구가 없으며, 2층으로 구성된 19개의 아뜰리에에 연간 수백명의 예술가들이 머물며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
- 지역민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예술가들과 19구 지역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 등 단순한 유흥지 개발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철저히 지역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기반 도시재생 사례로 파리의 상업 중심이자 도시의 성장으로 광역 중심의 주요 결절점 되었음.
- 레알지구는 최초 지하 상가에는 거주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에게는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상가를 배정하였으며 노점상에게도 상가 입점 우선권 부여함으로써 당시 상인 및 지주들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음.

- 센터 건물은 건물 개방을 위해 모든 설비와 동선 코어들을 건물 밖에 배치하였으며, 공업적 색깔 분류법에 따라 시설별 색을 다르게 하여 공간을 조성함



▣ 로테르담 - 현대건축 사례 방문 (마켓홀, 큐브 하우스 등)

- 로테르담(Rotterdam)은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유럽 최대의 무역항 로테르담 항이 있는 도시로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음.
-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폭격으로 로테르담 도심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가 재건하여 고풍스러운 유럽 건물보다는 현대적인 신축 건물이 많음. 로테르담에는 똑같은 형태, 똑같은 색깔의 건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건축을 자랑함.
- 마켓홀(Markthal)은 2014년 가을 오픈한 네덜란드 최초의 지상 실내 시장이자, 시장과 주거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 사례 중 하나임. 재래시장과 공동주거를 결합한 마켓홀은 용도 폐기됐었던 초등학교 옆에 조성하였으며, 실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게끔 매우 높은 층고와 투명한 유리창 설계하였음. 1층은 시장을 아치 위 공간은 230여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 복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 큐브 하우스(Cube House)는 38개의 작은 정육면체와 2개의 큰 정육

면체를 붙여 만든 주거단지로, 도심에 속 숲 같은 마을을 표현하기 위해 큐브 하나를 나무에 비유하며 큐브들이 모여 숲을 이루도록 만들었음. 현재 건물 중 일부는 호스텔로 운영되어 관광객이 직접 숙박도 할 수 있음.



IV 기대 효과

- 우리 시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50%를 감축하고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0’으로 하여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자는 ‘2050 탄소중립 배출 제로’를 선언하였음.
- 이에 전주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자 관련 교육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 자전거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음.
- 하지만 다수의 노후 주택, 늘어가는 차량,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실정임. 온실가스 배출은 비단 건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와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탄소중립을 일상화할 수 있음.

- 이처럼 탄소중립의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 주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생활 실천 모델을 발굴해야 함. 스마트 교통, 에너지 전환 등 각 영역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한다면,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네덜란드의 농업은 EU(유럽연합)라는 시스템 아래 성장하여 국내에서 벤치마킹을 해도 제도적 해결에 대한 문제해결은 극히 제한적임. 하지만 스마트팜을 통한 효율성개선(수확량, 인력, 데이터에 근거한 관리능력 등)은 전주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 통한 도시농업과 청년농업의 활성화가 가능함.
- 이에 유럽연합의 농업 관련 논의와 정책 형성에 대한 이해, 현지의 농업 현황 및 성공적 농업 정책 및 마케팅 전략을 직접 관찰하고 이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함. 더불어 ICT기술과 AI기술을 접목하여 척박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한 사례를 살펴보고 농업과 기술의 접목을 통한 전주시 농가의 기술지도 개선 방향성 수립하고자 함.
- 또한 전주시는 농업, 농촌자원을 연계하여 시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치유농업사양성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음.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선진적인 사례를 연구하여 체계적인 전주시에 맞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거주민 입주권 보장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사업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만의 정책들이 만들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여야 함.

- 상업시설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시 레 알 지구, 로테르담 마켓홀 등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건물에 대한 상업시설에 알맞은 개선과 상점 입점권 조정 등 물리적인 개선에서 정책적인 시행까지 살펴볼 수 있어 추후 전통시장 개선사업, 도심 내 산업시설 이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시 복합문화 시설을 계획하는 등 도시재생 유사사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 이번 출장을 통해 국외의 문화와 선진적 정책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적인 의정활동 및 발전적인 정책개발을 도모하고, 탄소중립도시 구현과 도시활성화,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우리 시 현안인 건물 에너지 효율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 도시재생 및 도시관리지침 수립에 대한 비전을 얻고자 전주시의회에서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 대한 출장을 추진하고자 하며,
- 내실 있는 활동 및 수집된 자료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단순히 정책을 체험하는 기회를 넘어 자치단체간 국제교류를 위한 안목을 넓히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V

방문국가 정보

1

프랑스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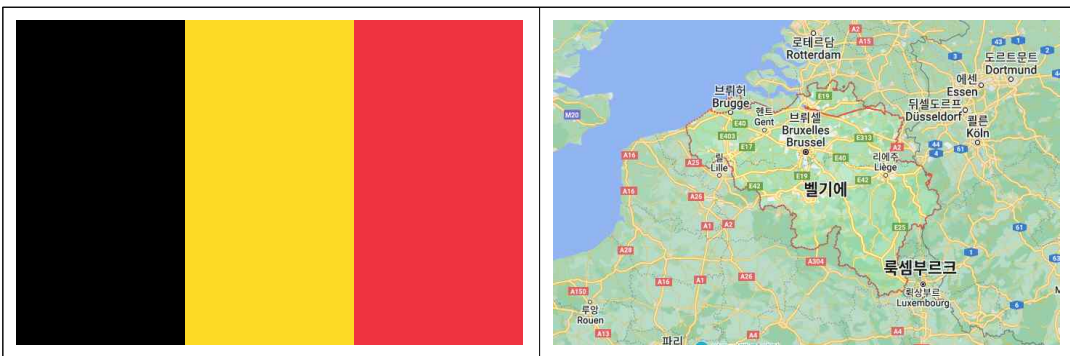
- 수도 : 파리
- 인구 : 약 6,488만 명(2024년 기준, 세계 23위)
- 면적 : 64,420km²
- 언어 : 프랑스어
- 종교 : 가톨릭교(83%), 개신교(2%), 이슬람교(5%)

○ 산업·경제 분야

-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 화학제품류, 기계류, 수송 수단이며 전체 수출의 53.5%를 차지하고 있음.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기계류, 수송 수단, 화학제품류, 광물제품류이며 전체 수입의 56.9%를 차지함.
- 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음. 식량자급률만 해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무려 300%를 넘으며, 순수 곡물 자급률은 190%로 해외로 많은 농축산물이 수출되고 있음.
- 정치·경제·금융·문화·패션·예술의 중심지로 관광이 주요 산업이며 파리광역 생활권 내 가계소득이 약 3배 이상 차이남에 따라 주거부문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이 발달되어 있음.

- 파리 시장은 2014년 초선에 당선되어 2020년 재선에 성공한 좌파 사 회당 소속 여성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로 대중교통 및 저 공해 교통수단 위주의 도심 교통 정책, 영세민 복지주택과 탁아시설 확대, 녹지공간 전폭 적 확대, 서민층 대상 다양한 축제 등 사회복지와 문화, 교통 분야에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음.

2 벨기에



○ 일반현황

- 수도 : 브뤼셀
- 인구 : 약 1,141만 명 (2024년 기준, 세계 82위)
- 면적 : 3만528km²
- 언어 : 불어, 화란어, 독어
- 종교 : 가톨릭 75%, 기타 25%

○ 산업·경제 분야

- 좁은 국토와 낮은 부존자원 등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여 무역과 기술 개발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서유럽의 부국으로, 두 번째로 산업 혁명을 겪어 급격히 발전하였음.
- 서비스 산업이 국민총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구조에서는 의료화학 산업과 일반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함. 또한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의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량은 80%이며, 가공 다이아몬드 거래량은 50%를 차지하고 있음.

- 스마트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 연구, 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음

3 네덜란드



○ 일반현황

- 수도 : 암스테르담(Amsterdam)
- 인구 : 약 1,767만 명(2024년 기준, 세계 72위)
- 면적 : 4만1865km²
- 언어 : 네덜란드어(영어 통용)
- 종교 : 가톨릭교(19.8%), 개신교(14.4%), 이슬람교(5.2%), 기타(5.1%), 비종교(55%)

○ 경제 · 산업 분야

- 네덜란드에서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천은 해외시장으로, 무역이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농업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첨단 기술과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영 규모와 생산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네덜란드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24위이며 생산량은 세계 11위

로, 제조업에선 석유정제, 석유화학, 전기기기, 철강, 식품을 중심 산업으로 삼고 있으며, 낙농과 원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농산물 수출액은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함.

○ 교통 분야

- 유럽에서도 벨기에 다음으로 조밀한 도로망을 갖춘 나라로,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높은 편이라 장거리 고속버스 네트워크는 부실하지만 도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유명함.
- 전국 곳곳을 구석구석 연결하는 철도망 덕에 국민의 35%가량이 장거리 이동 시에 철도를 이용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10배에 가까운 수치
- 높은 도로 품질과 별개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로 인해 2021년부터 고속도로의 주간 제한속도를 130 km/h에서 100 km/h로 낮췄음.

VI 출장 일정

일차	방문지역	주요 일정	벤치마킹 사항
1일			
2일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시 레 몰리노 • 클리쉬-마티놀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그리드 시범마을지역, 에너지 효율화 등 플랫폼 운영 사례 • 생태에너지(태양열, 지열 등)
3일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 상까트르, 레알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문화
4일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ve Gauche (리브고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재개발
5일	벨기에	파리 → 브리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치유농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농업
6일	네덜란드	브리셀 → 로테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테르담 마켓홀, 큐브 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화공간, 현대건축
7일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얄 플로라홀란드(화훼 경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ICT, 판매·유통, 시설
8일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트레흐트 중앙역 •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정책 • 농업 협력체계
9일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그리포트 A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농업, 친환경
10일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 인천 공항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VII 출장단 구성

□ 구성인원 : 16명(의원 10, 의회 3, 기자 3)

연번	직책	성명	영문성명	여권번호	성별	비고
1	단원	이기동				시의장
2	단장	박선전				도시건설 위원회
3	단원	김성규				
4	단원	김원주				
5	단원	김현덕				
6	단원	이국				
7	단원	최명철				
8	단원	최용철				
9	부단장	김정명				행정위원회
10	단원	채영병				복지환경 위원회
11	단원	박현천				도시건설 전문위원실
12	단원	이지영				입법정책팀
13	단원	최대로				미디어홍보팀
14	단원	김상기				전북도민일보
15	단원	김주형				전주일보
16	단원	최명국				CBS